

하늘나라 비밀번호 (시편 100:1-5)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은행계좌, 핸드폰, 이메일, 심지어 집 현관문까지 숫자나 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없이는 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나라에서도 비밀번호가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비밀번호는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100: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앞에 설 수도 없고 하늘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정은 마음에 늘 감사로 가득채워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② 두번째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100:2절 말씀에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정은 마음 깊은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정은 좋은일이 있을때만 감사하는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가정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늘나라의 비밀번호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번 추석명절
연휴동안 우리가정은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명절 가정예배 순서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자 : 신앙세대주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 같이

-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죽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 중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잊지않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가정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족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
만지 않는 이웃 친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수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00:1-5

다 같이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로다

말씀 선포

인 도 자

찬 송

559장

다 같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